

[종합]

혁신도시, 광주쪽으로 이동키로

광양만권 투자효율(2.45배) 1위

박시장·박지사, 최대 600m까지 北上 합의 개발이익 변동·의사결정 정당성 논란 일듯

광주시와 전남도가 나주시 급전면에 조성되는 공동혁신도시 입지를 광주 쪽으로 150~600m까지 옮기는 데 합의해 개발 기대이익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최근 당초 합의대로 혁신도시의 중심축을 나주시 급전면 동역리로 하되, 현재 용역안보다는 150~600m 북쪽(광주시 방향)으로 이동시키자

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30일 “최근 박 시장과 박 지사가 만나 공동혁신도시의 개발중심축을 광주 쪽으로 조금 옮기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고 공동혁신도시의 기본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본틀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광주시의 요구를 전남도가 부분적으로 수용, 시·도간 계속해온 상생·협력의 기초

를 유지해 가는 차원이라는 얘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인 토지공사에 의뢰해 중심축 이동을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서’를 보완해 다음달 중에 건설교통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혁신도시 중심축을 당초 예정지인 나주시 급전면 동역리 정점에서 2.5km 정도 광주에 가까운 나주시 산포면 지석강 인근으로 이동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가 전남도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개발대상지를 광주쪽으로 이동시키더라도 개발면적은 당초대로 230만평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이

동면적만큼 기존의 개발대상지역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개발이익 등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개발대상지 일부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이 시·도지사의 합의만으로 결정함에 대한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변경지역에는 혐오시설 등이 없고 이전기관도 반대하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으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실측 후 구체적인 대상지역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국회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평가 보고서’ 부산 1.78배·인천 2.36배 보다 높아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사업비 당 투자유발효과가 인천 및 부산·진해 자유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양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됨으로써 전남은 1조3천9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6년 예산인 8천526억 원을 투입할 경우 생산유발액이 2조860억 원에 달해, 투자유발효과가 투입 예산의 2.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 부산·진해자유구역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 예산 1조159억 원을 투입하면 2.36배인 2조3천97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5천896억 원을 투입해 1조5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1.78배)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광양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됨으로써 전남의 경우 건설부문에서 8천531억 원, 1차 급속 및 철강부문에서 2천635억 원 그리고 석유화학고무 부문에서 1천290억 원의 효과를 거

두는 등 모두 1조3천98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광양자유구역으로 인해 1차 급속 및 철강부문에서 150억 원, 석유화학고무 부문에서 85억 원, 광업부문에서 40억 원 등 모두 56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광주와 전남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7억 원과 37억 원에 불과했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광주에 6억 원 그리고 전남에 3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미치는데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의사를 밝힌 외국기업의 상당수가 중도에 투자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국회의원 출마 단체장 120일 전 사퇴 합헌”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중 재판관)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장모씨 등이 “선거법 53조 3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겹치거나 겹치

는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직위를 이용한 선선·권과 행정의 가능성, 이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저해 가능성이 더 크다. 단체장이 일반 공무원보다 60일 먼저 사퇴한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받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 자치단체장 2명을 포함한 청구인 3명은 “선거법 상 자치단체장이 다른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3년 10월 선거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연행뉴스



‘한미 FTA 국무위원 워크숍’ 한명숙 총리가 지난 29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한미 FTA 국무위원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연행뉴스

올 에너지수입 800억달러 넘을듯

상반기 원유·가스 등 1억2천만 사상 최대 전망

고유가 행진으로 올해 에너지 수입액이 8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유·가스·석탄 등 전체 에너지의 수입액은 모두 1억2천300만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에너지 수입금액은 작년엔

비해 무려 43.1%나 늘어난 420억달러에 달했다.

관세청은 “원유는 올해 상반기에 5천863만5천t, 269억7천600만달러나 수입돼 작년 동기보다 가격 기준으로 44.5%나 증가했다”면서 “현재의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에너지 수입액은 사상 최초로 8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고로, 태풍이 불어도 못뿔러 난다

‘암환자도 가입’ 종신보험 나왔다

금융감독원 1일부터 판매

고혈압이나 당뇨병, 암 등 질병을 앓고 있어도 들 수 있는 보험이 처음으로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가입 제한이 없는 ‘스탠바이 무배당 누구나 무조건 OK 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등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이 같은 질병으로 투병중인 사람은 보험을 받지 않고 있다.

이 상품은 50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 보험 가입 금액은 1천만원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 2년 안에 숨지면 이미 낸

보험료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년 후에 사망하면 1종 상품의 경우 1천만~3천만원, 2종 상품은 ‘500만원+납입 보험료의 70%’를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에 들 수 없었던 고령자, 중병자, 고위험 종사자 등이 가입 대상”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혼자 사는 노인을 지원하는 공익 상품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상품은 가입 제한이 있는 같은 종류의 보험보다 보험료가 20~40% 정도 비싸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내년 경제성장률 4% 중후반 예상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이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는 하반기 경기둔화 논란에도 연간 5% 성장률을 달성하겠지만 내년에는 4% 중후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격차도 기대만큼 좁혀지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체감경기 회복이 암울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반기 4.5%를 나타내며 연간으로는 5%를 달성한 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연행뉴스

광산업 매출 1조3천억 신장 251개 업체 6,100명 고용

광주시, 1단계 사업 평가

광주시가 자동차·가전과 함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光)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면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업 육성 1단계 사업(2000~2005)을 평가한 결과 인프라 구축과 관련 업체 증가 및 매출액 신장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착수전인 1999년과 비교해 매출액은 1천136억원에서 1조3천799억 원으로 11배 이상 급증했으며 업체수는 47곳에서 251곳(5배)으로, 고용인원은 1천900여명에서 6천100여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특히 광산업 기반 구축과 지원을 위한 산하 연구소와

기관 등으로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소, 고등광기술연구소 등 무려 12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관련 업체의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에 480여억원이 지원됐으며 광주시역 대학원과 대학, 실업계 고교 등 관련학과에서 3천여명의 인력이 배출돼 광산업의 인적기반을 형성했다. 이는 이와 함께 광산업 집적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LED와 광응용, 자동차 부품 등 6개의 단위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2010년 지역 광산업 생산은 7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27%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고용은 4만9천여명으로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분실

골프회원권 No. J02-12-0190 승주C.C 신영엔지니어링 안운봉 상기 회원권을 분실공고함.

광고접수안내

☎ 062-227-9600

전립선의 새 생명을...

전립선 銀 J2V

www.j2v.net

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純銀 99.9%로 제작된 은열봉

“8년 전통의 J2V는 국내 및 세계 20여 개국에서 신뢰와 자신감으로 확고히 다져진 브랜드입니다.”

전화주시면 방문 상담 하겠습니다

대진바이오메디칼 호남지사 ☎1588-3871

분양대행전문회사

분양대행 전문-분양이 안되십니까?

*아파트/상가/빌딩/전원주택/기타부동산관리

부동산 개발 관리-토지개발을 준비하십니까?

부동산 투자 클럽-투자유망한곳을 찾고 계십니까?

광주·전남 공인중개사 협력채구성

분양! 청담과 상의하시면 값이 있습니다.

(주)청담 D & C 062)382-4984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옆

청담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담전화:062)381-0049

- 광주권 아파트/토지/상가/건물-매물접수
- 아파트 분양권 전문-분양권매매 상담현영
- 아파트 부지 구함
- 이주자 협의택지 구함
- 필요하신 부동산 구매드립니다
- 부동산 투자상담 현영

산행안내

▲팔성산악회 지리산 칠선계곡산 너탕 8월1일(월) 07시40분 풍안중 (백운문리리.분회회관후문경유) T.011-605-3477

▲청록산악회 지리산 서석령전 신선계곡 8월2일(수)08시 광주교원 공제회관(문예회관경유)출발 T.011-616-5917

▲이대로산악회 진북정수 장안산 (무림고개 덕산계곡) 8월2일(수) 07시30분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백운문)농아병원, 문예회관경유)출발 T.011-649-4576, 011-605-6361

▲청봉산악회 남해 금산 상주해수욕장 8월3일(목)08시 롯데백화점

정남일 출발 T.011-9601-4421

▲가고파산악회 전남 완도 상황 봉산행후 명사실리해수욕 8월3일(목) 08시 광주역과죽소 앞 출발 T.011-605-5034, 011-601-8238

▲광주한국산악회 반야봉-백사골 8월3일(목) 08시 영주체육관(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예약바람 T.011-615-2279

▲광주목요산악회 충북보은 머나봉 8월3일(목) 08시 광주역광장앞 출발 T.011-601-8994, 011-441-8845

▲울림산악회 전북 진안-운일암-반일암-은산산 8월3일(목) 08시 상

특목관 08시15분 문예회관앞 출발 T.011-602-3515

▲광주제석산악회 전남 남해 금산(상주해수욕장) 8월5일(토) 08시 남구형 주차장 출발 (다음카페:제석산악회) T.011-609-5547

▲광주도요산악회 보리도 격자봉(이송리해수욕장) 8월5일(토)07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 출발 http://cafe.daum.net/gwangjutoyo T.011-608-4267

▲광주우보회 완도 상황봉(명사실리 해수욕장 경유) 8월6일(일) 07시 대인광장(우주체육관 경유) T.011-9600-5364

▲광주한길산악회 영월 백운산 동상해프링 8월6일(일) 00시 광주역출발 T.222-3253, 010-7619-0559

▲호남산악회 지리산 중앙산 절

전계곡 8월6일(일) 08시 광주역 광장(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T.010-6246-7231, 011-605-5034

▲청단산악회 지리산 서석령전 현신계곡 8월6일(일) 08시 청단 우리은행4거리 출발 T.011-602-4972

▲전남산악회 등영 백방산-천계산 8월6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T.010-9776-3630

▲빛고을외모름회 지리산 칠선계곡 8월6일(일) 08시 광주역 고래시반드(홈플러스상주점 경유) T.011-609-7159, 010-6601-9774

▲보리미산악회 지리산 피아골계곡(청석재-위결령-피아골) 8월6일(일) 08시 광주역(두인동은병원,88테니스장경유) T.011-645-7796

▲062한빛산악회 내소사산산반도(대천해수욕장 8월6일(일) 07시 30분 광주역광장앞 출발 http://cafe.daum.net/062hanvit T.010-3131-3580

▲광주나시모신우회 곡성 농악산 신령곡.아련트레킹사 8월6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http://cafe.daum.net/gwanisimo T.062-525-7223

▲광주신사랑모임산악회 충북 괴산 절보산 8월6일(일) 06시30분 두동성기상후문 수영장 앞 출발 T.010-7171-2682, 011-602-5224

▲다음카페:(사)요산요수산악회 완도 명사실리해수욕장 8월6일(일) 07시 남광주화강교(광주역 경유)출발 T.011-620-2002

▲요산회 지리산 경왕상 취림폭포, 내림폭포, 장문대, 제석봉 8월6

일(일) 08시 광주역광장앞 출발 T.011-641-0254

▲광주영천산악회 덕유산 동업령(경원계곡-동업령-빙기실계곡) 8월8일(화) 08시 월곡시장(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T.011-228-2677

▲삼각산악회 지리산 칠선계곡-산너랑, 옥녀탕 8월13일(일)08시 두암동88테니스장 앞 출발 T.011-644-2730

▲광주태일산악회 지리산 백사골-반야봉 8월13일(일) 07시 구전남도청의회앞 출발 (다음카페:광주태일산악회) T.011-609-5547

▲광주도요산악회 중국 황산 9월30일(토)-10월3일(화) 3박4일 *예약마감:8월10일 http://cafe.daum.net/gwangjutoyo T.011-608-4267